

NKPC 제39회 총회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정인수 목사, 총회장으로 부임

미국장로교(PCUSA)산하 전
국한인교회협의회(NKPC, Na-
tional Korean Presbyterian
Council) 제39회 총회가 6월 22
일부터 25일까지 코스타리카 산
호세에서 열렸다.

총회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요4:35)’는 주제로 진
행됐으며, NKPC는 이번 총회를
‘산하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10년
간 역동적인 교회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NKPC 관계
자는 “사람들이 모여 종교적인 의
식을 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수
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구원 사
역의 도구가 되기 위해 모든 것
을 다 동원하는 교회를 이 시대는
원한다”며 “주님께서 2천 년 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다. 이번 총회를 통해 많은 교회
들이 새롭게 힘을 얻기 바란다”
고 전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인수 목사
가 NCKPC 총회장에 부임했다.
공천위원회는 총회장 정인수 목
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부총
회장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
교회), 평신도 정교모 장로(달라
스빛내리교회), 남선교회 대표 김



정인수 목사

일 장로(산라파엘), 여성교회 대
표 지인순 장로(텍싱턴, 감사 차
신터 집사(시애틀연합장로교회),
김영철 집사(시카고한미장로교
회)를 공천했으며 이의 없이 그
대로 통과됐다.

정인수牧사는 “20년 이상 미
국장로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불
평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총회
장 직을 통해 헌신하고 겸손케 하
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화
와 격변의 시대, 한인교회 전국총
회를 어떻게 갱신하고 새롭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인 교회 총회를 겸
손하게 변혁할 때가 됐다. 앞으로
좀 더 강한 연대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다.

그는 “한인교회에는 여러가지
과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파
구를 찾아주실 것”이라고 덧붙
였다.

〈윤주이 기자〉



JAMA 중보기도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열린 컨퍼런스는 매 시간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다. 사진은 첫째날 저녁집회에서 (왼쪽부터)자마 부대표 강순영 목사, 자마 대표 김춘근 교수, 동부사랑의
교회 담임 박승규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다. © 지재일 기자 ▶ 3면에 계속

SBC 총회장에 캡 카운티 브라이언트 라이트 목사 당선

미 남침례교회(SBC) 회장으로 조지아 지역 브라이언트 라이
트 목사(Rev. Bryant Wright, 57)
가 당선됐다. 라이트 목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플로리다 올
랜드에서 열린 제 153차 SBC 연

차총회 이튿날(15일) 열린 총회
장 경선에서 플로리다 지역 출
신 테드 트레일러 목사(Rev. Ted
Traylor)를 854표 차로 눌러 총회
자직을 수행하게 됐다. 라이트 목
사는 당선이 확정된 이후 “총회장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현희 기자〉

다음주신문 쉽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6·25기념 ‘구국기도회’

제60주년 기념, 조국 위한 합심 기도 드려

60주년 6·25 상기 교회연합
구국 기도회가 6월 24일 빛과소
금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한인
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 주관
으로 열린 기도회는 6·25 기념
행사일 뿐만 아니라 최근 천안
함 사건으로 경색된 한반도와
남북 평화통일, 조국의 목회자

와 교회, 미주 동포사회를 위한
구국 기도회로 진행됐다.

변영익 목사(벤엘장로교회)
가 스피커지 않은 한국전쟁과
평화적 통일 위한 기도 인도를
시작해 조현 목사(나성예수촌
교회)가 △조국교회와 목회자
를 위하여, 강순영 목사(예수사

람선교회)가 △대통령과 청
와대, 위정자들을 위하여, 이춘
준 목사(장대교회)가 △대법원
판사들과 국회의원, 군지도자
들을 위하여, 김기동 목사(충만
교회)가 △유엔안보리에 상정
된 안, 박은중 목사(예일한인교
회)가 △동포사회를 위한 기도



6.25 60주년 교회연합 구국기도회에서 이기홍 목사가 설교했다. ©지재일 기자

를 각각 인도했다.
이날 설교한 이기홍 목사(증
경교협회장)는 “대한민국은 전
쟁의 위기에서 구원받고 60년

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발전을
거뒀지만,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인권 전반적으로 세계에
서 가장 실패한 나라가 됐다”

며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지
만 거역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기홍 목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좌파정부 10년의 결과로
사상적 분열이 심각한 때이며,
미국 또한 청교도 정신이 흐려
지고 국가 기도회를 없애자는
등 영적 위기에 처해있다”며 “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
아 응답과 축복을 누리길 원한
다”고 설교했다.

〈박상미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사역훈련 세미나”

평신도 리더 훈련 중, 제자훈련의 다음 단계 과정인 사역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역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민 교회 목회자 중 사역훈련을 현재 실시 중이거나 앞으로
실시 예정인 분들을 초청합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후 사역훈련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강사 김명호 목사(국제제자훈련원 대표)
김건우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0년 8월 9일(월) 오전 10시
- 11일(수) 오후 3시

대상 제자훈련 지도자(CAL) 세미나
수료자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등록처 국제제자훈련원
(T 714.635.3000)

등록비 \$140 (\$200 호텔 숙박시)

등록마감 7월 16일(금)

KAPC, 대화 통해 발전 방향 모색



KAPC 임원 및 노회장 연석회의 단체사진.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문성록 목사)가 7월 1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문성록 총회장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노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문성록 목사는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회기동안 개편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총회부터는 영어권 목회자들을 위해 순서를 이

가 모이기 전 기준을 노회장에 전달하도록 결의했다. 한편 총회는 산하 기관인 세계선교회에게 총회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 선교의 밤 순서가 일방적으로 결의되지 아니할 것, 총회 선교사 현황 파악을 보고하고, 선교사 파송 신청자에 대해 소정의 훈련 과정을 꼭 거치게

임원 및 노회장 연석회의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

을 비롯, 3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8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문성록 총회장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노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중 언어로 표기하기로 했다. 내년 총회에는 ‘2세 선교 전략’이라는 강의 시간이 마련된다. 이는 이기 최 목사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영어권을 위한 북미주 노회 소속인 최 목사는 총회 고시를 통해 목사 안수를 받은 재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교단으로 떠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 총회 전 아젠다를 설정한 후 충분한 스테디를 거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인 교회 흐름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문성록 총회장은 “열린 자세로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총회 산하 모든 노회를 돌아보고 싶다”고 전했다.

노회장들은 “적극적으로 영어권의 요구를 표현해 달라”며 “북미주 노회의 새로운 일들을 협의해준다면 시간을 배정해서 사역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 임원 공천 기준을 정리하기로 했으며 공천부

를 정리하기로 했으며 공천부

를 정리하기로 했으며 공천부

탈북자 입양법 상. 하원 통과 위한 동참 호소

샘 한 이사장, 7월 개최될 청문회 증인 참석 예정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로 북한 주민의 탈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가장 열악했던 1997년에서 1999년 당시 중국 체류 탈북자 규모는 10~30만여 명으로 추정했다.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이 다소 호전되고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자 발생 규모가 줄어들고 북한으로의 강제송환과 한국 입국자 증가로 중국 내 탈북자 규모는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2~3만 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내 탈북자 전체 규모는 감소했으나 체류자의 상당수가 1997~1999년 시기에 탈북해 중국 체류기간이 10년 전후를 보이며서 이들에 의해 중국에서 태어난 아동들과 탈북 당시 고아로 중국에 입국한 아동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고아 신분으로 탈북한 아동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탈북 부부 또는 현지인과 탈북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도 부모의 불법적 신분으로 인한 신분위협, 생계곤란, 부모의 강제송환과 한국행으로 인한 가족해체, 교육기회 박탈 등으로 고아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 체류 탈북 고아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북한 고아를 돕고 있는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Han-Schneider International Children’s Foundation)’은 미국 상. 하원에 계류 중인 2010 탈북자 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0, 연방 상원 법안 S.3156) 통과를 요청하는 법안을 지난 3월 23일 제출했다. 2010 탈북자 입양법은 북한

단 샘 한 이사장은 “지난 3월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법안이 제출된 후, 하원의원들도 탈북자 입양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7월로 예상되는 2010 탈북자 입양법에 대한 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안 통과를 위해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탈북자 입양법을 위해 미국 내 ‘한인교회연



탈북 고아들.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캔사스 주 출신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 백(Sam Brownback) 상원 의원이 제출해 루이지애나 주 출신 민주당 소속 메리 랜드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수천 명의 가족 없는 북한 어린이들이 북한에서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에 맞서고 있고, 주변국에서는 무국적 난민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수천 명의 미국 국민들이 북한 고아 입양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며, 미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가족 상봉, 미국 가정에 의한 입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

합(KCC, 대표간사 손인식 목사)과 인권단체 ‘링크(Link)’, ‘북한 자유연합’ 등도 법안의 통과를 위해 각종 지원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내 약 1,500여개 한인 교회가 연합한 한인교회연합은 오는 7월 13일(화)과 14일(수) 이틀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탈북자 입양법’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인권단체 ‘링크’도 법안의 통과를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상?하원의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지재일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번호 : (213) 739-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파산법	이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

JAMA 중보기도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전국 천 여명 성도 모여 미국 영적 회복 위해 기도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중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다. ©지재일 기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대하7:14)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한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전국 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6월 29일~7월 2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강림 사건이 재연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대하며 3박 4일간 각성, 회개, 부흥의 기도를 올렸다. JAMA 대표 김춘근 장로는 “우리의 기도와 능력보다 능히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며 “하나님의 은총만이 희망이고 회개와 부흥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때에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한 중보자로 여

러분을 세웠다”고 말하며 환영사를 대신했다. 29일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의 개회예배 설교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저녁집회로 첫째 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10년 전 시작됐던 첫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회상하며 저녁집회 설교를 시작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해 중보기도자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촉구했다.

한 목사는 “전 세계에서 미국처럼 신앙을 위해, 신앙을 바탕으로

로, 신앙인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없다”며 “마지막 날 세계선교의 사명을 다할 미국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며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기도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여 이 땅 미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한기홍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케 하고 미국을 회복시킬 수 있다”며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새벽과 저녁의 집회를 제외하고 사전 등록자들에게 한해 진행됐으며, 30일은 중보기도와 중보기도자의 영적전쟁, 기도의 자극과 관리, 21세기 글로벌 리더십, 7월 1일은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와 사람을 돕는 중보기도, 중보자의 영성관리, 치유 중보기도, 선교의 본질에 대한 세미나 2일은 교회 안에 중보자 세우기와 새 천년의 코리아 디아스포라와 비전 등의 세미나가 각각 진행됐다.

〈박삼미 기자〉

[새벽강단 2] 동문교회 새벽예배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고현권 목사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은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동문교회(담임 고현권 목사)의 새벽예배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그 계명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본문〉요한일서 3:17~24 본문 18절 말씀처럼 얼마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합당한 열매로 드러내야 합니다. 실제적인 행동과 섬김을 통해 사랑과 신앙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나 응답, 역사하심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녀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오는 가책으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책망할 것을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 예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요15:5처럼 구원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명은 다릅니다.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박삼미 기자〉

LA교역자협의회, 한미 나라 사랑 기념식 개최



LA교역자협의회 표세홍 목사가 6·25 한국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최 추봉 장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태근 기자

LA교역자협의회가 주최한 6·25전쟁 발발 60주년 맞이해 한미 나라사랑 기념식 및 구국연합성회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LA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한미 양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한미나라사랑기념식 및 공로패 수여, 전우가 제창, 구국연합성회

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로패는 6·25 한국전쟁 참전 국가유공자와 나라사랑자녀교육 모범 교역자 김성범 목사, 나라사랑 1.5세 교민 김한나 양 등에게 수여됐으며, 구국연합성회에서는 6·25 참전국 번영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미국의 안정을 위해, 교포사회 화합과 단결을 위해 기도했다.

〈이태근 기자〉

예수는 나의 힘이요~ ♪

남가주 최초로 창단된 기독교 남성 합창단인 레위남성성가단(단장 박희덕, 지휘 광명규)은 지난 27일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창단 24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성가단은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세 명의 다른 작곡자의 ‘Gloria(Marry Lynn Light-

foot, Eugene Butler, John Leavitt), ‘We Are One(Allen Pote), ‘Praise His Holy Name(Keith Hampton), ‘Ride on king Jesus(Arr by Moses Hogan), ‘예수는 나의 힘이요(Will L. Thompson), ‘손뼉을 쳐(박지훈 편곡), ‘모든 것 주셨네(Craig Curry)’ 등 다수의 은혜로운 성가곡을 연주해 성황을 이뤘다.

레위남성성가단 951-719-9131

〈지재일 기자〉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뉴비전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뉴비전교회는 1981년 창립되어 그동안 북가주 지역에서 교포와 지역사회 복음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차세대 이민교회의 새 비전을 제시하실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자격

1. 이민 목회의 새 비전과 소명이 있는 분
2. 교회에서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남침례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분
3.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회경력 5년 이상으로 담임목회 경험 있는 분
4. 저희 교회내의 영어권과 함께 사역이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한 분
5. M.Div나 Th.M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이상

서류

1. 이력서 (Resume)
2. 자기소개 (가족 포함) 및 목회 비전서 (Mission & Vision Statement)
3. 졸업 및 안수 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 Ordination)
4. 본인 /가족사진 1매
5. 설교 Tape / CD 혹은 Video Tape 2개
6. 3 명의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7. 마감날자: 7/19/2010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New Vision Church
C/O Sr. Pastor Search Committee (청빙위원회)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Tel: (408) 719-0000 Fax: (408) 719-0007
Email: srpastorsearchcte@newvisionchurch.org



OC 성시화운동본부 목회자 초청 모임 가져



지난 6월 24일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오렌지카운티 성시화운동본부(목회자 홀리클럽) 목회자 초청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기홍 목사의 사회,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의 환영

과 인사말, 한기홍 감독(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의 성시화운동 소개, 옥세철 장로(LA 홀리클럽회장)의 홀리클럽 모임 소개, 송경명 목사(LA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의 미주 성시화운동 사역 소개, 최문환 장

로(미주성시화운동 이사장)의 이사회구성 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목회자 초청 모임에서는 오렌지카운티 성시화운동본부 조직 및 임원 위촉과 사역 계획에 관한 내용을 확정했다. 한기홍

목사와 박용덕 목사(오렌지카운티교회 협회)와 송규식 목사(오렌지카운티교회 총무)와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간사)에게 위임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성시화운동'이란 도시를 복음화하여 죄악으로 타락한 도시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말한다. 성시화운동은 전 교회(Whole Church)가 전 복음(Whole Gospel)을 전 시민(Whole City)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펼치는 운동이다. 한국

에서는 1972년 7월31일 춘천에서부터 시작된 성시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미국에서도 LA, 라스베가스 등 그리고 남미 파라과이까지 전개해가고 있다.

〈지재일 기자〉

제33회 베데스다대학교 졸업예배 드려

제33회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진유철 목사) 학위 수여식 및 졸업예배가 6월 26일 오전 나성순 복음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 수여식을 통해 목회학 석사(12명), 성서학석사(2명), 신학사(9명) 등 석사 총 4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예배는 베데스다대학교 동문회장 조요한 목사의 기도, 진유철 목사의 학위 및 상장 수여, 순복음복미총회 총무 김훈 목사의 격려사, 베데스다순복음교회 담임 배현성 목사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졸업예배 설교를 전한 진유철 목사는 졸업생들에게 극도의 고난을 극복한 명사들의 일화를 소개하며,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다.

〈지재일 기자〉



제33회 베데스다대학교 졸업예배 후 단체 사진촬영. ©지재일 기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MEJ 3차 공연위해 방문한 길건, 에스더



(왼쪽부터)가수 길건, 에스더. ©지재일 기자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청소년들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죠.”

25일 개최된 크리스천 연예인 공동체 MEJ의 콘서트를 위해 LA를 방문한 가수 길건과 에스더를 크리스천헤럴드와 공동으로 인터뷰했다. 지난 19일 축구 응원하러 모인 한인들을 대상으로 노방전도를 한 이유기부터 꺼냈다.

“노방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그들의 공허한 마음과 또한 방치되어 있는 모습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빨리 손을 내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길건)

“축구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모여 있어서 전도의 기회였어요. 많은 관심 가져 주셨는데...그만큼 갈급한 영혼들이 많다고 생각

했어요.”(에스더)

MEJ 콘서트는 이런 갈급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 열리는 콘서트는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한다.

“우리로 방황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셨

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에스더)

이번 콘서트에는 길건, 에스더 외에도 가수 별, 강균성 등이 함께한다. 자비를 들어가며 바쁜 스케줄을 쪼개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이 넘치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진 달란트는 눈과 귀를 만족시키기엔 충분할 것이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넘치는 열정은 영혼의 만족과 도전을 줄 것이다.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는 나의 독특한(?) 모습을 풀어주지 못하셨고 상처가 되어 방황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죄로부터 큰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에스더)

“매일 죄를 짓고 또 죄책감에 눌려 힘들게 되잖아요. 물론 죄를 깨닫게 될 때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길건)

〈박상미 기자〉

나이스크 컨퍼런스 ‘예배회복으로 부흥 꿈꾼다’

예배회복을 통한 이민교회의 회복과 부흥, 목회자의 영적 성장과 목회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나이스크 월드 미션(Nyskc World Mission:대표 최고선 목사) 본부는 7월 5일(월)~8일(목)까지 HOFSTRA University(900 Fulton Ave. Hempstead, NY 11550)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목회자 부부를 비롯해 평신도 청년 어린이등 한인교회 전 성도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가 시작된 뉴욕에서 나이스크 운동에 동참하는 전세계의 참가자들이 모이는 범세계적인 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실장 박재준 목사는 “오늘날 교회의 약화 현상은 예배가 형식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나이스크 컨퍼런스 가운데 예배 회복에 대한 비전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목사는 “컨퍼런스 가운데 예배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참가자들이 마지막 날 함께 맨하탄 일대에서 노방 전도로 복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이스크 컨퍼런스는 2011년에 해외와 미국에서 격년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2011년에는 영국에서 2012년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나이스크는 다섯 가지의 신앙생활의 신조를 바탕으로 예배회복을 이루기 위한 운동(Movement)으로, N-New Life : 새벽기도 영혼의 호흡, Y-Yielding for Manna : 성경에독 영혼의 양식, S-Salvation for one by one : 개인전도 성도의 열매, K-Keeping for LORD's Day : 성수주일 성령의 교통, C-Complete Offering : 일조전납 축복의 도리를 말한다.

등록마감은 (845)355-8829, (714)553-8497


〈박상미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푸엔테 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인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차,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생인 자

- 특 전**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시를 면제함
- 구비서류**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순수 기독교 영화 '아들의 노래' 제작된다

순수 복음 영화인 '아들의 노래'가 제작된다.

아들의 노래는 패션오브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Christ)가 그려낸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서 좀 더 나아가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까지를 그려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영화다.

영화는 유명 할리우드 배우 등이 출연하는 할리우드 영화와의 차별화를 위해 그리고 영화 제작사인 피쉬트리의 최종 목표인 크리스천을 위한 게임 제작에 필요한 기술 축적을 위해 수묵화를 이용한 2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

이번 영화 제작을 위해 나선 이는 영화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10여년 만에 돌아온 첫 번째 영화 선교사 이성수 감독이다. 이 감독은 "2년 전부터 영화 선교사가 되었고 2005년부터 선교사가 되어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았지만 정착 선교사가 필요한 곳은 문화계였습니다. 세상



이성수 감독

이성수 감독, 한인교회 영화 제작 참여 요청

은 문화를 통해 청년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하나님의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를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라며 다시 돌아온 경위를 밝혔다. 이 감독은 이번 영화가 하나님

의 선한 영향이 미치는 영화가 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아름답고 시원하게 그리고 따뜻하고 친근하게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며, 선교지와 세계 곳곳에서 상영되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향을 미치는 영화가 되게 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수묵화라는 독특한 그림체로 제작되는 영화 제작 비용은 약 400만 불. 만만치 않은 제작비이지만 이 감독은 꿈에 부풀어 있다.

수묵화가 잘 보존되어 있고 가장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 예수의 이름 아래 북한과 한국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깊은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감독은 현재 미주한인교회를 방문, 영화 제작에 교회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전하며 교회와 개인 그리고 크리스천 기업들

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감독은 "그동안 크리스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은 많은 인력과 제작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개인, 기업들이 참여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이 일을 해낸다면 세상도 놀랄 것이고, 한번 만들면 다음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교회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성수 감독은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종상 각본상 수상 했으며 한국 최초의 러시아 로케이션 영화 '맨발에서 벤츠까지'(1991)로 대종상을 수상했다. 또 이 감독은 제주 열방 대학 SBS(성경 연구 학교) 수료, 캐나다 밴쿠버에서 YWAM(예수 전도단) DTS(제자 훈련 학교) 훈련을 받았으며, (사)티엔팀으로 부터 문화예술 선교사로 임명 받아 파송됐다. 문의: 261-835-5868 (이태근 기자)

발달장애 청소년들 위한 사랑의 캠프 개최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캠프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UC산타바바라에서 개최했다. 사랑의 캠프는 남가주를 비롯해 북가주, 시애틀, 밴쿠버 4개 지역의 밀알선교단 멤버들이 함께 하는 대형 행사로 올해 12호째 개최됐다. 사랑의 캠프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매직쇼, 수영, 한국문화 체험하기(제기차기, 한복 입어보기, 사물놀이 악기 연주하기 등), 장애자전거타기 등 흥미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지재일 기자)

시온성중앙교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첫 장학금

2세대들이 견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차세대 리더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교회나 가정의 간절한 소망이다.

2세 사역을 위한 첫 걸음이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장학금 지원은 이런 이유로 각 교회마다 활발한 지원 사역을 펼친다.

시온성중앙교회는 지난 6월 27

며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로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벽이슬은 깨끗하고 순수하다 = 박 목사는 "하나님께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 그릇인지 보신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고, 이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 된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앞줄), 이철남 장로(뒷줄 가운데) 부부, 박상규 목사(교육부 임원). ©박상미 기자

만, 우리의 자녀들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똑똑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위로했다.

또한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이슬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낀 구름이 없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먼저는 1세대들의 신앙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설 때 새벽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을 길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첫 장학금을 위해 기꺼이 헌금한 이철남 장로 이정심 권사

부부(KIC: Korea Intermission Corporation)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천들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하나님께도 인정받아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쓰이면 좋겠다"고 축복했다.

시온성중앙교회는 주일예배 시간 권하영, 김진태, 이혜진, 임술아, 조영상 등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미 기자)

'불신자를 태신자로, 태신자를 초신자로'

2010 블레싱데이 컨퍼런스(Blessing Day Conference)가 지난 28일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시작됐다.

전교인이 태신자를 선정하여 등록시킴으로써 실제로 열매가 맺히는 전도프로그램인 Blessing Day conference는 첫째 날 저녁 열린 예배를 드리며 선우권 목사의 개인간증과 전도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 나누었

다. 선우권 목사는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직분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아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다"면서 "부흥이나 개인적인 신앙의 전환에는 항상 때가 있다"고 항상 전도에 힘을 것을 강조했다. (지재일 기자)



블레싱데이 컨퍼런스에서 선우권 목사가 전도할 때 주시는 축복과 개인간증을 전했다. ©지재일 기자

박상규 목사, 2세를 위해 1세대에게 교육적 사명 있어

일(주일) 교회 학생들에게 첫 장학금을 지원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아울러 2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도했다.

박상규 목사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주일 설교(본문: 시 110편 1~4절)를 통해 "2세대들이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의 교육적 사명이 있다"

새벽이슬은 마른 땅 사막의 식물들을 살린다= 박상규 목사는 "새벽이슬은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을 담고 있다"며 "이런 능력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삼킬 수 없다"고 전했다.

새벽이슬은 어두운 밤에 만들어진다= 박 목사는 "미국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고 있지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7월 5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p>본교의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수료후 취업을 앞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p>본교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기입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우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 10년 동안 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차매에서도 벗어나고 무언가 매일 할 수 있는 소망을 주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오니 대회를 빛내고자 심사를 하실 분과 자원 봉사자 20명을 초청합니다. 연말의 바쁘신 시간들을 나누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그랜드 팍 양로병원 예배실: 12월 17일 오전 9시 30분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

중앙 양로병원 예배실: 12월 18일 오전 10시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여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 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8·15대성회 전진대회 “희망을 노래하자”



한국교회가 연합해 세상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8·15대성회 전진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성회는 현재 한국 기독교 양대기구인 한기총과 NCKK가 공동 개최하며, 조직위원회 측은 지난 1907년 평양대부흥 이후 1974년 엑스플로74대회, 1984년 한국기독교100주년 선교대회, 2007년 평양대부흥100주년 기념대회 등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겼던 모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성회를 계획 중이다.

이날 전진대회는 대성회의 연합적인 성격을 알리기 위해 각 순서자들을 한국교회 전체를 아

우르는 상징적인 인물들로 채웠다.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과 NCKK 전병호 회장이 각각 대회사와 환영사를 진행했고, 축하와 다짐의 말씀에도 학계·인문계·여성계 대표들과 지역·해외 대

등의 영역에서 포럼이나 심포지움, 엑스포 등으로 분야별 일치를 도모한다.

최성규 목사 “하나님도 갈등 없는 한반도 꿈꾸신다” 안재우 소장(북화술연구소)과

이제는 남북이 하나되는 날로도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한반도에 성령의 신이 뜨겁게 임하실 것을 믿는다”며 “제2의 건국을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강조했다.

예배에서는 유만석 목사(예장 합정 총회장)가 기도, 홍경종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장)·임성이 장로(NCKK 양성평등위원장)가 성경봉독,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합심기도 등을 각각 맡았다. 이어 신경도 감독(상임대회장) 사회로 진행된 전진대회는 대회 취지를 알리는 레이저 퍼포먼스와 교단별·나라별 국기를 든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했다.

“세상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대회사한 이광선 목사는 “엑스플로74대회 이후 35년만에 모든 성

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우리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희망을 노래한다면 다음 35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호 목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대성회는 분단의 절조망을 걷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기총과 NCKK가 하나님과 민족 앞에 하나돼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전진대회는 이영훈 목사의 ‘한국교회 8·15대성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위한’ 전진선언과 박경조 주교(명예대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대웅 기자〉

‘모이는 한국교회’ 전통 되살려 위기 극복을

표, 평신도 사역자·군목 등을 배웠다.

또 15개 분과를 조직하고, 이들 중 9개 분과별 대회를 개최해 명실상부한 한국교회의 일치를 준비하는 등 의욕적으로 준비에 나섰다. 학술·선교·교육·복지·통일·문화·다문화·청년·장애인

예기(타악잔양팀)의 축하공연 이후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이정의 목사(상임대회장) 사회로 최성규 목사(명예대회장)가 설교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많이 사랑하셔서 많은 책임도 주신 것으로 안다”며 “광복의 날, 건국의 날인 8월 15일이

하고, 공산당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갈등과 전쟁이 없는 한반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하나되는 한반도를 꿈꾼다”며 “우리만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꿈꾸고 계시고, 이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찾아온 6·25의 생생한 증인들, ‘감격의 밤’

6·25 60주년 전야에 열린 평화기도회



한국(왼쪽)과 미국 참전용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대웅 기자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가 자유 대한민국의 변명과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 위로행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24일 오후 교회 프라미스홀에서 한국전쟁 상기 및 평화기도회를 개최했다.

새에덴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 참전용사 초청 보훈행사’를 주최, 올해로 네번째를 맞았다. 한국교회 최초의 민간외교 활동인 보훈행사는 특히 올해 6·25 60주년을 맞아 역대 최고인 1백여명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했다.

이날 예배에는 스티븐스 미국 대사를 비롯, 정계와 교계 주요 인

사들이 대거 참석해 참석한 한·미 양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교회에서 준비한 만찬 이후 시작된 예배에서는 소강석 목사가 설교했다. ‘피로 맺은 우호 언약(출 24:6-8)’을 제목으로 설교한 소 목사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초청해 이같은 행사를 하는 이유는 첫째,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참전용사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전쟁을 모르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를 교육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피로 맺은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소 목사는 이어 “연고도 없는 땅에서 꽃다운 청춘을 불사르고

피 흘려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여기 머무는 동안 저희가 종처럼 섬기려 한다”며 “부디 돌아가셔서 우리나라의 명예 홍보대사가 되시어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티븐스 미국대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격려사를 동시에 전해 눈길을 끌었다. 스티븐스 대사는 “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피로 맺은 동맹을 기리고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 자녀들은 6·25 전쟁을 아주 오래된 역사로 알고 역사책에서 배울지 모르겠지만, 무려 3년간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이들이 있었음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는 또 “한·미동맹이 이제 환갑(60주년)을 맞았으니 양국 관계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며 “미국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인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통일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리에 참석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참전용사 여러분들 덕분에 이 땅에 평화와 자유가 찾아왔으며 경제는 번영됐고, 특히 기독교가 크게 발전해 세계에서 두번째 가는 선교국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흘려진 피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이를 값있게 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한나라당)과 김영진 의원(민주당)이 격려사와 기념사를,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이 축사를, 이철휘 대장(제2작전사령관)이 영상 감사메시지를 각각 전했고, 맥스웰 미 재향군인회장과 세릴 모어 참전용사 가족 대표는 감사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우재창 의원(민주당)이 대표기도, 이재창 목사(경기기독교총연합회장)가 축도, 이진성 목사(용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성경봉독을 맡았다.

또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 평화통일을 위해 황우여 의원(국회조찬기도회장), 한·미 우호증진과 참전용사들을 위해 박성철 회장(국가조찬기도회)이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참전용사들은 앞서 지난 23일부터 한국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현충원을 방문해 동지들에게 헌화하면서 시작된 보훈행사는 전쟁기념관 방문, 서울타워·삼성전자 견학, 대구 2군사령부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이대웅 기자〉

주택 차압/퇴거 중단

-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
-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 Foreclosure Intention, Trustee Sale 통보 받은 분
-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숏 세일(Short Sale) 진전이 없어 불안하신 분
- 이미 융자 조정, 숏 세일 시도했었으나 실패해서 차압이 임박한 분
- 숏 세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분
- Foreclosure(차압)이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을 기다리고 계신 분
- 세컨 홈, 4 Unit, APT, 상업용 건물, 교회...
- Rent로 살던 집이 숏세일이나 은행에 차압(Foreclosure)이 되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분

융자 조정(후불, 미주 전역)

즉각 차압 중단
즉각 퇴거 중단

- 현재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으나, 크레딧 손상 없이 페이먼트를 낮추고 싶은 분
- 변동 이자 페이먼트(Option Arm)를 내고 있어서 원금이 늘어나 불안한 분, 30년 고정 프로그램으로 재융자 하고 싶으신 분(NO Tax, Bad Credit OK)
- Obama 법에 의해, 융자 원금 삭감 가능 (예: 2차 론의 경우, 18만불에서 2만불만 내고 16만불 탕감 받음, 사무실 방문시 모든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NO...NO Short Sale : 저희는 절대로 숏 세일을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Paul Lee (폴리)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213-248-9297**

2010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월드 크리스찬 신학대학/대학원 World Christian Theology & Seminary

이 불경기에 아직도 비싼 학비를 내고 공부하십니까?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무료)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정규 신학 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학교등록
School Code 83344530
World Christian University CA Code 03-020689
California Corporation Code 94808
California Education Code 94739

대학부(B,A)	대학원(M.Div)	박사원(Doctor)	통신 학부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입학자격: 4년제 대학	입학자격: 석사 학위 소유자	(Department of Home Study) 대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통신으로 수업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학부입니다. (미국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모집학과: 신학과, 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선교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모집학과: 신학과, 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선교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모집학과: 신학박사, 종교 교육학 박사 상담학 박사, 선교학 박사 명예 박사 수여도 가능합니다. (특별 상담 가능)	

- 본교 특징** (수시입학 가능)
1. BPPVE와 ABHE 인가를 받은 정규 대학교입니다.
 2. M.Div 졸업자는 본 교단에서 목사 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 대학부 만은 전액 장학금을 드립니다.
 4. 의식주 문제있는 학생 해결
 5. 여학생을 지원하는 학생 장학 지원
 6. 선교사(약기, 성악) 기도원장 이수과목 수료후 자격증 발급 및 사역 지원

구인모집 ◆ 학교 행정업무 보조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 및 컴퓨터 능한자 (40세 미만 환영)

교수 채용 공고 아래와 같이 강의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교수님들을 초빙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신학대학 :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교회사, 기독교리, 상담학
음악대학 : 음악이론, 지휘법, 건반악기, 작곡
선교대학 : 선교학, 기술선교(의료), 찬양운동, 신문, 장애인선교, 특수목회대학원 : 교도소선교, 양로원선교, 경찰선교, 헬터선교

자 격 : 해당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수여자로 세례교인 이상
제출서류 :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추천서 / 제출시간 : 2010년 8월 20일까지
제 출 처 : World Christian University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함)

학교 (323)734-0227 미국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단 (323)734-2300
교무처 직통 (213)725-3007, (323)734-4599 /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3년 남은 WCC 총회, 찬반 양론 좁혀지나

재단법인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성 박사)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교회와 WCC'를 주제로 38회 공개강연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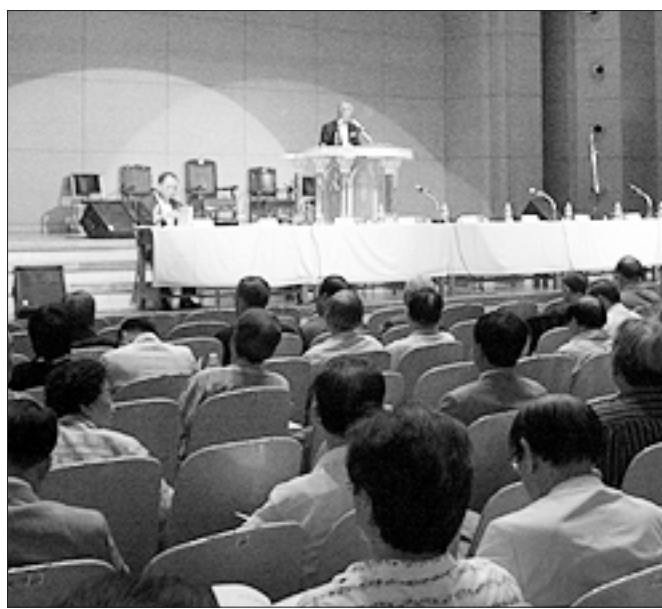
이날 발제자로 이형기 박사(장신대 명예교수), 김길성 박사(총신대 부총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양낙홍 박사(고신대 교수)가 초청됐고 논찬자로 이승구 박사(합신대 교수), 박성원 박사(영남신대 교수), 권호덕 박사(백석대 교수), 임희국 박사(장신대 교수)가 나섰다.

강연회는 WCC에 찬성하는 진보적 성향의 학자가 발제하면 WCC에 반대하는 보수적 성향의 학자가 논찬을 맡고, 반대로 보수적 성향의 학자가 발제하면 진보적 성향의 학자가 논찬을 맡는 식이었다.

주제는 '이것이 WCC 신학의 긍정과 부정' 'WCC 신학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WCC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제10차 WCC 부산총회 어떻게 대처할까'였다. 각 학자들의 발제 내용은 지금까지 WCC를 주제로 열렸던 각종 신학 세미나와 토론회 등에서 다루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은 WCC의 신학과 활동에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한 반면 보수적 성향의 학자들은 WCC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그간 어느 한쪽만의 입장을 발표하거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서 그친 기존 행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발표 후 패널 토의를 거쳐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조율, 몇 가지 사안에서 의견의 폭을 좁혀보고자 한 것.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이종운 목사(서울교회)는 "이날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입장을



재단법인 한국기독교학술원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교회와 WCC를 주제로 38회 공개강연회를 개최했다. © 김진영 기자

공개강연회에서 양 진영 학자들의 의견 조율

정리해 이것을 WCC에 전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첫번째는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것이었다. 이종운 목사는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종교간 대화를 추구할 뿐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고 했다.

이에 박종화 목사는 "WCC가 타종교와의 대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종교다원주의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와 화합하면서도 각자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이 WCC가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중동처럼 갈등 없이 교회가 성장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종교다원주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이종운 목사는 "분명한 것은 타종교는 수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확실한 금을 그어달라. 종교간 대화를 통해 그들을 복음화시킨다면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타종교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원 박사 역시 박종화 목사와 같은 입장에서 WCC의 종교다원주의를 부정했으나 양낙홍 박사는 "WCC의 90년도 한 문서에는 명백히 종교다원주의의 구절이 있다"고 반박했다.

두번째는 '미시오 데이'(Missio Dei), 곧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것이었다. 이종운 목사는 "WCC의 창립 목적은 정말 좋았다.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핍박했을 때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WCC가

생겨났다"며 "그런데 그 패러다임이 사회·정치적으로 변했다. 미시오 데이 신학이 본래의 신학으로 돌아가고 WCC 역시 창립정신으로 돌아간다면 한국교회는 WCC 총회를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양낙홍 박사도 "WCC 총회가 지나치게 사회적 문제에 치우치면 기독교의 사명인 복음전도를 통한 영혼구원이 간과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두 가지 측면이 골고루 다뤄질 수 있도록 WCC에 요청해야 한다"고 이 목사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박종화 목사는 "(그러한 입장을) 제안하면 WCC 총회는 모두 수용해서 받아 줄 것"이라면서도 "WCC 중앙위원회의 선교에 관한 문서는 사회구원과 개인구원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로잔대회의 도전을 받아 수용한 결과"라고 했다.

박성원 박사도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분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WCC의 신앙은 하나이고 신앙의 증언과 고백도 통전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은 '교회의 일치'에 관한 문제였다. 이승구 교수가 "WCC가 말하는 가시적 교회의 연합,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연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것인지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종화 목사는 "수퍼처치는 불가능하고 성서적이지도 않다. WCC는 종교간 대화를 추구하고 세계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곳이지 하나의 종교를 만들거나 하지 않는다. WCC가 외치는 가시적 일치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영 기자)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20돌 맞아 감사예배

1890년 '조선성교서회'로 출발한 최고(最古) 출판사

개신교 최고(最古)의 문헌서신교 기관인 대한기독교서회(이사장 박종화 목사)가 창립 120돌을 맞아 25일 오후 서울 장충동 경동교회에서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대한기독교서회는 한국 선교 초기인 지난 1890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게일과 헬버트 등의 선교사들이 '조선성교서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했다.

그해 교리집인 최초의 간행물 <성교활리>를 발간한 후 120년간 4천여종이 넘는 단행본을 출판했고, 연합사업에도 앞장서 족복음과 전도문서, 한글성경과 찬송가 등을 보급하며 복음전파에 큰 역할을 했다.

일제시대인 1915년 한국교회 유일 주간지 <기독신보>를 발행했으며, 영문지 'The Korea Mission Field'로 한국의 현실을 해외에 알렸다.

해방 후인 1952년에는 어린이 잡지 <새벗>을, 1957년부터는 <기독교사상> 등을 펴냈다.

정지강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기독교서회는 한국교회가 연합해 세운 기관으로 많은 책자들을 출판·보급해 왔다"며 "이제 맡은 소임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돌아보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격려사에서 "서회가 앞으로도 120년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용 기자)



대한기독교서회최초건물 모습. ©대한기독교서회 제공

“한국교회, 연합과 협력 통해 세계선교 이끌어 낼 것”

한국교회가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을 맞아 교파와 지역을 초월한 연합과 협력을 추진하며 21세기 세계선교를 이끄는 데 앞장서기로 다

짐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주제로 세계선교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조망한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

주년 기념 2010한국대회'의 주요 행사인 국제선교학술대회는 에딘버러대회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한국대회 성황리 개최

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 서구교회 선교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오늘날 세계 복음화를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선교 방

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23일부터 24일까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된 학술대회에는 40여개

러 세계선교사대회의 회고와 전망(제1분과) ▲성경과 선교신학(제2분과) ▲선교와 타종교(제3분과) ▲선교와 현대사회(제4분과) ▲선교와 영적 지도력(제5분과) ▲선교와 교회/목회(제6분과) ▲한국선교와 신학 교육(제7분과) ▲문화와 사회 변동(제8분과) ▲선교와 연합(제9분

과) ▲한국교회와 세계평화(제10분과) 등 10개 분과에서 모두 1백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에릭 탄 나이 호 박사(싱가포르 비전네트워크 대표), 랑쿠마 박사(인도 SAIACS 교수), 장훈태 교수(백석대학교, 전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회장), 박영환 교수(서울신학대학교, 한국선교신학회 회장) 등 국내외 저명한 선교학자를 비롯하여 도날드 클락 박사(미국 트리니티대학교), 엘리자베스 언더우드 박사(미국 이

스턴 켄터키대학교) 등 한국에 파송됐던 미국 선교사 후손, 조범연 선교사(인도), 이홍정 선교사(필리핀) 등 박사 학위를 소지한 한국인 선교사 등 총 1백여명이 논문을 발표하여 세계선교의 어제와 오늘을 반성하고 미래 대안을 제시했다.

2010 한국대회는 지역교회 선교 동원을 위한 선교대회가 오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개최된다.

(이지희 기자)

www.seattleonnuri.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은누리교회 (미국 C&MA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사역을 담당해 오신 김제은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①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② 전임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 ③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 양식은 은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 최근 인물 사진 1장
-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s)
-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 기한: 2010년 9월 30일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홍 목사

시카고 최초의 조선족교회 창립된다

오는 9월 초, 시카고 지역에 최초의 조선족교회가 창립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 다수가 서류미비자이기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대략 1200명 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00명이면 적지 않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카고에 조선족교회가 없었던 이유는

사 혼자 목회를 감당하기가 아직 쉽지 않다는 판단과 조 전도사의 요청으로 시카고조선족교회를 시카고한인교회의 조선족 회중으로 받아들이고 5부 예배를 신설하는 형식으로 조선족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진행된다. 서창권 목사는 "조선족교회는 행정이나 목회에서 물론 독립성을 갖지

조 전도사는 "대부분 조선족들이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그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은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한인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이 조 전도사의 생각이다.

한인들이 처한 상황과 조선

■ 시카고한인교회에서 적극 지원 및 협력 ■

이민자들 자체가 중국에서부터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고 미국에 와서는 경제 활동에만 치중하다 보니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조선족 대다수가 경제 활동을 한인사회 안에서 영위하기 때문에 일부 조선족들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한인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을 목회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이번에 창립되는 조선족교회의 사역자는 조광철 전도사다. 그는 "큰 돈을 벌어 보겠다"며 1972년에 뉴욕으로 왔다. 그러다 시카고로 이주해 한인교회를 결성했고 한인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됐다.

"복음으로 중국을 섬겨야겠다"는 막연한 소명감만 갖고 있던 조 전도사에게 불을 붙인 것은 아내였다. "언제까지 돈만 벌 것이냐"는 아내의 강한 도전에 조 전도사는 시카고한인교회 서창권 목사와 오랜 상담 끝에 중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 진학했고 현재 M.Div. 과정에서 공부 중이다.

공부하며 목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조 전도사가 살렘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렇게 2년 반이 지났고 조 전도사는 다시 시카고한인교회로 돌아가 "시카고조선족교회"를 창립한다.

시카고한인교회는 조 전도

만 시카고한인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시카고한인교회 측은 찬양팀이 조선족교회의 예배 인도를 돕게 하는 한편, 조선족교회가 재정적으로 완전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성도 중 몇 가정을 조선족 회중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재정적 지원을 하게 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시카고조선족교회의 조광철 전도사

서창권 목사 자신도 조 전도사가 목사로 안수받고 훌륭한 목회자로 성숙해 가도록 적극적인 멘토링과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서 목사는 "조선족 회중을 손님이 아니라 생각하면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 한 식구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동안 시카고조선족교회는 조 전도사의 집에서 수요예배와 성경공부를 해 왔다. 현재 20여명이 출석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창립되면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며 전도와 선교 활동에 나서게 된다.

족이 처한 상황이 큰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의 오랜 이별, 그 가운데의 많은 유혹, 돈에 대한 집착, 중국인이면서 한국인인, 동시에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조선족들만의 특별성 때문에 한인교회가 조선족 한명 한명의 신앙을 돌보아 주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 전도사는 "주일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더라도 성경공부만큼은 조선족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인교회 담임목사님들이 도와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도사는 바쁘다.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조선족들, 서류미비자 조선족들, 경제적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조선족들을 한명 한명 돌보기에 정신이 없다.

이들의 특성상 지역 이동도 잦아 고정적인 교회 멤버는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조선족 목회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

그는 "지금 창립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잘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 이들이 중국 본토에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야말로 이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비전"이라고 말했다.

"아직 내가 만나본 조선족들 가운데 미국에 영연히 살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고향에 돌아간다고 한다.

이들이 고향에 갈 때 돈 말고 무엇을 가져 가겠는가" 시카고 조선족 선교야말로 중국을 복음으로 돕고 변화시킬 가장 좋은 자원이란 것이 조 전도사의 설명이다.

<김준형 기자>

살렘교회 건축 완공 "이제부터 이뤄가야 할 꿈"

오는 11일 교육관 봉헌 및 25주년 감사예배

"꿈★은 이루어진다." 15년만에 이뤄진 꿈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이뤄가야 할 꿈이기에 마음이 더 설렌다.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는 1995년 창립 10주년 때 현재 성전을 완공한 이후, 교육관 증축을 놓고 15년간 기도해 왔다. 그러다 6년 전, 40살의 김태준 목사가 부임하면서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지금 이 때다"라고 일을 시작하려 하자 기다렸

듯이 불경기가 찾아 들어 왔다. 살렘교회가 이 불경기와 씨름하며 벽돌을 한장 한장 올리고 있을 때 한 백인이 말했다. 김 목사의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의 어머니였다. "얼마 전 나는 직장을 잃었고 남편도 직장을 잃었다. 그런 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 희망을 느낀다." 불경기에도 건물이 점차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

이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과 사랑으로 자기 가족도 돌보아 주실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학교를 마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때마다 돌아가더라도 살렘교회를 지켜 보며 희망을 얻어 왔다.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사를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더니 "이런 불경기에는 일이 다 끊기는데 교회가 이렇게 일을 맡겨 주시니 우리가 도리어 고맙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 불경기에 건축한 것도 다 뜻이 있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 안팎에 걸쳐 오는 어려움은 겪어 본 사람만 안다는데 김태준 목사에 따르면, 살렘교회에는 이 '지독한 불경기'를 제외하면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문의) 10 S. Walnut Lane Schaumburg, IL 60193 (847) 534-2826

<김준형 기자>



완공된 살렘교회 교육관. 오른쪽의 본당에 연결되는 형식으로 교육관이 증축됐다.

시카고, 무신론자들 주요 활동 무대 되나

무신론자들에게 시카고가 주요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봄 인디애나주무신론자 버스캠페인(Indiana Atheist Bus Campaign) 단체와 미국인분주의협회(American Humanist Association)가 창세기 구절을 비교

아 '태초에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In the beginning, man created

God)'라는 문구를 시카고 버스 광고에 실은 데 이어, 몇 달 후 시카고 이성주의연합(Chicago Coalition of Reason)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꼭 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No one needs God to be good)"라는 문구를 시내 광고판에 게재한 바 있다. 기독교계는 이 사건에 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무신론자들은 광고 자체를 하나

최근 시카고 교통국이 운영하는 시카고 버스들은 '일요일엔 쉼'

카고를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이 곳에 우리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자유사상가들(freethinkers)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고 FFRF측은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은 20세기 미국 합리주의의 운동이 시작된 곳이자 종교적 다원주의가 우세한 시카고가 과거의 무신론자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사상을

종교로부터의자유(FFRF) 등 단체들 활동 무대로 삼아

라(Sleep in on Sundays)'라는 문구의 광고를 내걸고 도시 곳곳을 누르고 있다. FFRF가 사들인 이들 광고는 주일 예배에 나가느니 차라리 느긋하게 늦잠을 잘 것을 권하며, 그들 단체의 이름과도 같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시카고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광고 운동을 펼치기를 계획하고 있는 그들이 시

전파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무신론자들에게 흥미로운 장소가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무신론자들의 행동들은 미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시간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인들이라는 지배적 다수에 반대해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확장시켜나가고자 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손현정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함세복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울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중동부)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영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경공부: 화요일, 수요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OT세미나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교,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나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아(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전 8:30 5부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ic.org

들로스선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거리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노래예배 매일 오전 7:00(다운터 4기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세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아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1:00 (토) 오전 7:00
 셀모임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 (714) 900-1008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교동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충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화-금) (1,3,5부주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교동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90005
 T. (213) 249-9191 / F.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충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딩)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양)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위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손인식 목사, 워싱턴 햇불대회 협력 당부

KCC 관계자들, 워싱턴 교계 지도자들과 면담



손인식 목사가 워싱턴 교계 지도자들에게 대회 진행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KCC(미주한인교회연합) 대표 간사인 손인식 목사가 22일 워싱턴을 방문해 지역 교계 대표자들을 만나 7월에 열린 워싱턴 햇불대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인식 목사와 케넷 손 목사는 이날 오전 메릴랜드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협력을 당부했으며, 저녁에는 케넷 손 목사가 지역 15세, 2세 목회자 및 청년단체 대표들과 만나 협력을 구했다.

22일 저녁 애난데일 소재 펠리스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는 워싱턴 지역 간사인 손형식 목사를 비롯해, 김성도 목사, 배현수 목사, 차용호 목사, 명돈의 목사, 유종영 목사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손인식 목사는 7월 13일과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 회복을 위한 '햇불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한인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손 목사는 "언젠가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 앞에서 감사통곡기도대회를 열고 싶다"며 "동서독이 통일에 앞서 장벽을 사이에 놓고 서로 통곡하면서 하나가 됐던 것처럼 이번 KCC 햇불대회가 전세계 한인교회들을 하나로 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 햇불대회는 13일 오후 2시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으로 시작해 4시 30분 백악관 후문이나 중국대사관앞 기도회, 7시 30분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기도회 등으로 진행된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기도회에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14일 정오에는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시위를 개최하며 오후 2시 30분부터 연방 상하의원 사무실을 방문한다. 상하의원 방문시에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전역에서 인턴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5명씩 그룹을 지어 목회자들과 함께 탈북고아입양법안 통과를 호소하게 된다. 이미 미주서부에서 만 110명의 청소년들이 인턴을 지원했다. 저녁 7시 30분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리는 햇불기도회에는 탈북자의 참상을 그린 영화 '크로싱'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 배우 차인표씨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광선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와 서경석 목사 등 한국 교계 지도자들과 해외 한

인교회 대표단, 미 주류교회 대표단, 국제 인권 NGO 대표단, 평신도 대표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에드 로이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김일성대학 출신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김지우 탈북여류시인, 조성래 팩스 코리아나 대표 등이 연설자로 초청됐다. 워싱턴 지역 간사인 손형식 목사는 "당일 애난데일 지역과 볼티모어 지역에서 행사장까지 대형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적극 동참하자"고 전했다. 문의 : 714-928-8582, skim@kccn.org(샘 김) (조요한 기자)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워싱턴지역기독교청년연합회 6월 연합예배

워싱턴지역기독교청년연합회(회장 이흥주) 6월 연합예배가 27일(주일) 오후 7시 워싱턴한인장로교회(담임 박성일 목사)에서 열렸다. 연합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한 이날 예배에서는 박성일 목사가 "Living Sacrifice(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은혜를 더했다.

말씀 이후에는 워싱턴 지역의 영적 각성과 청년들을 위해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청 여름 연합수련회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메릴랜드 소재 Summit Lake Retreat Center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영적 각성"이며, 강사는 최용하 목사, 윤성철 목사, 조원상 교수 등이다. 문의는 이흥주 회장(571-214-2889, info@wachung.org)에게 하면 된다. 7월 4일까지 등록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7월 연합예배는 매주 화요일 8시 중보기도회를 갖고 있는 페어팩스 구세군교회(4915 Ox Rd, Fairfax, VA 22030)에서 가질 예정이다. (조요한 기자)



워싱턴지역기독교청년연합회 6월 연합예배

뉴욕신광교회 목회자초청 공개세미나 개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회장 김정국 목사), 연세대신과대학뉴욕동문회(회장 노순구 목사)와 연세대출신 목회자초청(회장 김상모 목사)가 목회자 세미나를 28일 오전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목회자초청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는 최중수 박사(전 UMC 한인선교감리사), 노순구 박사(뉴저지 리버델교회 담임)로 최중수 박사는 '반고흐의 성화를 통한 치유 목회'라는 주제로, 노순구 박사는 '신명기에 나타난 의문 부호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중수 박사는 연세대 신과대 및 연합신학대학원

을 졸업하고 미국 스퀘트대학원 졸업(MA), 미국 필라델피아 파머신학원(전 동부 침신)졸업(DMin), 연세대. 이화여대 강사 역임, 미연합감리회목사(준회원 1984년, 정회원 1986년), 체리힐교회 개척, 필라서부한인교회(12년), 연합감리회 동북부한인선교구 선교감리사(5년)를 역임했다.

노순구 박사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1973년),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졸업, The Southern Baptist Seminary(PhD), 동문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뉴저지 리버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오상아 기자)

텔런트 권오중, "부탁이 아닌 축복을 드리러 왔습니다"



간증하고 있는 텔런트 권오중 씨

"1분에 34명, 제가 간증하는 이 순간에도 벌써 천명 이상의 어린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잇혀진 가방'(소명)을 찾아 함께 이들을 살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기아대책기구(회장 정정섭)와 앤드류 영 재단, 그리고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손

잡고 창립하는 Ac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이하 AID)를 기념행사를 위해 방문한 텔런트 권오중 씨가 27일 연합장로교회를 찾아 하나님을 믿기부터 기아로 허덕이는 어린이들을 돌보아주시는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냈다. '순풍 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

90%이상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됐다. 이때 권씨는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런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살아 하나님을 믿기부터 기아로 허덕이는 어린이들을 돌보아주시는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냈다. 처음에는 이들을 돕자는 마음

난 뒤에 숨겨진 축복에 대해 알게 됐다. "이후 기아대책을 통해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장을 보았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 옆에는 남겨진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도와 달

연합장로교회서 가슴 적시는 진한 간증 전해

을 막을 수 없다' '식객' 등 유쾌하고 인간미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던 권오중 씨는 이날 간증의 자리에서 만큰은 자못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무신론자에 가깝던 권 씨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건 기독교인이었던 아내와 결혼부터이다. 아이가 4살 무렵, 병원에 갔던 권 씨는 아이가 수년 안에 죽게 되는 근이영양증일 확률이

이 강했던 권 씨는 차츰 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야근하거나 만원버스를 타며 힘들어하던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은 희귀난치병을 겪는 아이들이 한번 만이라도 해보고 싶던 것들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결코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매사에 감사가 넘쳤다. 또 아픈 아이를 가진 가정의 아픔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며 고

라고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울 수 있는 삶,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을 요청한 권 씨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에도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라고 당부하며 간증을 마무리했다. (김앤더슨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op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20개 다민족 참석, 글로벌다민족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개최

미국의 영적회복과 세계 복음화 위해 기도

미국장로교(PCUSA)산하 전국 한인교회협의회(NKPC,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ouncil) 제 39회 총회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다. 풍요롭지만 영적인 배고픔에 시달리는 지금의 시대, 문제의 근원은 '인간'이다. 지금의 때 사람을 찾는

갈구를 담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요4:35)"는 주제로 열리는 총회가 진행된다. NKPC는 이번 총회를 '산하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10년간 역동적인 교회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NKPC는 "사람들이 모여 종교적

인 의식을 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교회를 이 시대는 원한다."며 "주님께서 2천년 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번 총회를 통해 많은 교회들



글로벌다민족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들.

이 새롭게 힘을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총회에는 3백여명이 참석했다. 공식적인 일정은 22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김남수 목사(프라이스교회 담임), 스테반 에이너(컬럼비아 신학대학) 박사, 신정인 목사

(NKPC 선교협력위원회 위원장), 금상호 선교사(코스타리카 현지인 선교사)가 주제 강의를 전하며 이승태 목사(총회장), 정인수 목사(부총회장)가 설교한다. NKPC는 PCUSA 내 NAPC (National Asian Presbyterian Council)

에 속한 협의체로서 1972년에 조직됐다. 현재까지 400여 개의 회원교회와 6만 명의 교인을 가진 규모로 성장했다. NKPC는 PCUSA 교단 내에서 흑인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회 그룹이다.

<임형진 기자>

미국 기독교를 향한 중국 목회자의 고탐

중국의 한 목회자가 중국 당국의 압박을 걱정하는 미국 교회를 향해 '고난의 유익에 동참하라'는 고언(苦言)을 전했다. 상해열방선교교회를 담임하는 최권 목사는 지난 20일 벨류사랑의교회(담임 조영훈 목사)의 주일예배에서 '고난의 유익(롬5:1-6)'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상해 열방선교교회 최권 목사

최 목사는 설교에서 중국교회가 겪는 환란을 설명하며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는 미국 기독교의 침체 원인을 고난과 인내 없는 편안한 종교 생활에서 찾고, 위험과 도전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역설했다.

최 목사는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고난 받는 중국을 바라보며, 고난에 함께 들어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은 고난 가운데 연단을 거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의 미국 교회는 고난과 위험이 없는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며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라는 고난에 동참하고 지금도 죽음의 위험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최 목사는

고난에 동참하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1993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1999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상해에서 열방선교교회를 시작했다. 열방선교교회는 중국 당국에 등록된 삼자교회가 아니지만 처소교회와 같이 은폐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300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3년 6개월 만에 2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이게 됐다. 주일예배는 오전 8시 부터 2시간씩 예배를 드리며 오후 4시까지 총 4부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 작년 7월부터 공안들은 예배가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

했다. 이후 11월에는 공문이 내려와 교회 문이 닫히기도 했다. 하지만 성도들은 굴하지 않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후 여러 지역으로 나뉘져 11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공안의 압박과 박해에도 최 목사를 건디게 해 주었던 말씀은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이었다. 최 목사는 "크리스천에게 고난과 인내 대한 해석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고난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크리스천의 인내란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하는 적극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라며 "고난을 겪으며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큰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지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은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설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향해 문 열라"

페이스 북음주의 신학대학원(Faith Evangelical College&Seminary) 학장 이규현 목사는 지난 26일 시애틀 한인장로교회(담임 김호환 목사)에서 '제 1차 건강한 교회 만들기 포럼'을 개최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 발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내 놓은 내용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과, 각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

위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자기 내면과의 관계, 환경과 사회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다"며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전했다. 또 교회는 각 지체 간에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이민교회의 상처와 어

강조했다. 안 박사는 "교회에는 등록 교인과 거듭난 교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며 "반목이 많은 교회, 불협화 된 교회, 무질서한 교회, 불화하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신앙에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교회는 건물이나 그룹, 집단이나 개인의 리더십을 말하지 않는다"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를 중심삼은 곳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음주의신학대학원, '제 1차 건강한 교회 만들기 포럼'

속에 이르고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 사회를 향한 열린 마음을 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번 포럼은 신학적, 성경적 건강한 교회를 잃어버린 채 자칫 목회화 될 수 있는 교회에 하나님 중심의 교회,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울 것을 제시했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교회의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이 됐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기체로, 각 지체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필요. 발제자로 나선 김호환 박사는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네 가지 관계를 들려 건강한 교회에 대해 발표했다. 김 목사는 건강한 교회를

려움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지적하고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려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민교회 내 성도들은 자기 성숙의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의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 원인 가운데 물량화 대량화를 꼽으며 교회가 사람에게 투자할 돈을 건물유지에 투입하거나, 고립화되면서 사회와 교통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문은 서서히 닫혀 질것이라고 역설했다. 교회는 건물이나 집단, 개인 리더십 아니다. 안상엽 박사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박사는 "교회는 등 록 교인과 거듭난 교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며 "반목이 많은 교회, 불협화 된 교회, 무질서한 교회, 불화하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신앙에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교회는 건물이나 그룹, 집단이나 개인의 리더십을 말하지 않는다"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를 중심삼은 곳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교회는 이타성을 전제로 세상 축복해야. 구약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교회를 주제로 발제한 정태희 박사는 '교회는 이타성을 전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창세기 18장에서 "빵의 모든 죽음을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란 구절을 인용해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박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배타적으로 흐르며 순탄치 못했음을 지적하며 교회가 개 교회를 키우는 데만 관심을 갖고 세상을 향해 축복을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세상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태희 박사는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목회자가 성도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여드름 완치!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 의과 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el. 213-380-0835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김영길 칼럼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지난 주간에 350여명의 아이들과 150여명의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

를 부르면서 경중 경중 뛰는 것을 보니 마치 봄철에 온 지면에 새싹들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 몹시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설교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그 목소리들이 어찌면 그렇게 신선한지요. 제가 교회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에도 여름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비하면 턱없이 지루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한 여름의 후덥지근한 날씨에, 에어컨은 아직 세상에

여름성경학교

올려 4일 동안 행복하고도 활기에 넘치는 여름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면 두 달 전부터 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온 교회는 새로운 단장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본당을 거대한 벽화들로 채우고, 성경공부를 하는 조그마한 방들까지도 가지각색의 그림들로 도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함께 춤추고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인 금요일 저녁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이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노란색의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이 찬송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 선 풍기조차 없는 무더운 교회당 안에서, 마이크 시설도 없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통제하느라 목이 쉬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턱을 쳐들고 선생님의 동화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름성경학교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방학이 시작하는 날부터 여름성경학교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가 끝나는 날에는 그 긴 여름방학을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길러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저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마음을 다하여 길러내십시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배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들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양성필 칼럼



양성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소설 홍길동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홍길동전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서자 홍길동이 마당에서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는 서자의 서러움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호호호형을 허하노라' 하는 장면에서 본처의 자식이 아닌 여종에게서 난 서자인 홍길동이지만, 그래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곡가인 존 뉴턴이 회심하고서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면서 자신 같은 죄

인까지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앞드려 무릎 꿇는 그의 고백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무익한 종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까?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주님께서 치르셨기

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심은, 해골에 십자가를 꽂으신 것입니다. 옆에 종이 있다면 해골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해골꼭대기에 십자가를 그려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해골, 사망에게 사형을 명하신

나는 성도들에게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두었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은 예수를 믿지만, 막내 아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아들들을 불러 작별인사를 합니

사망에게 사형을

것입니다. 죽음에게 사형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사망의 권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사형을 명하시므로, 우리에게 죽음은 없게 된 것입니다.

목회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장례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그리고 식구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얼마나 아쉽고 슬픈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에게 사형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

다. 첫째 아들에게 "Good Night, My son"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인사를 합니다. 이제 곧 불 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나 막내 아들에게는 "Good Bye, My son" 합니다. 막내 아들이 통곡을 하며 묻습니다. "엄마 왜 내게는 Good Bye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너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 이제 이별이구나" 합니다. 그제서야 막내 아들이 울면서 고백합니다. "엄마, 나도 예수를 믿을게요. 내게도 Good, Night 해주세요." 그제야 어머니는 막내 아들에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아들 Good Night" 하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연 칼럼



김재연 목사
세계비전교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로스 알토힐이라는 꽃동네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아주 가까운 언덕길도 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길거리가 장식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가 아름다운 꽃동산이 된 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 동네에 요한이라는 우편배달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길을 오가며 편지와 소포 등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그는 다람쥐처럼 15년 동안이나 열심히 쳇바퀴를 돌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부터 인생과 직

서 요한은 하나님께 이 일을 15년 동안 계속했는데 너무 지루하고 지겨워 어떻게 더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반문하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요한아 보람 있는 일을 생각해 보렴"이라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은 계속 이 문제로 기도하

놓고 다니며 지나가는 집집마다 앞마당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꽃씨는 날아가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꽃씨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꽃동네

꽃씨를 뿌리면서

업에 대한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단순하고 단순한 우편배달부 삶에 싫증이 났습니다.

내가 과연 우편배달을 계속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잡을 잡을 것인가?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편배달부 일을 계속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다가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 각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하면서 우편배달을 하겠습니 다' 라고 기도한 후 그때부터 요한은 여전히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똑같이 편지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우체부 가방 속에 꽃씨를

가 되었고 꽃동산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하루하루의 삶이 보람된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편배달부 요한처럼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꽃씨를 뿌리면서 아름다운 꽃동산을 이루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www.rosehills.com

저렴한 가격과 가까운 장례식장을 원하신다면...




품격있는 명품 장례식- 로즈힐 장례 서비스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어 서비스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며 로즈힐만의 100여년 전통과 노하우로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한인 장례 매니저의 친절한 맞춤 서비스
-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6개의 아름다운 채플
- 종교에 따른 다양한 예식 • 저렴한 장례 관 가격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본사(한국어 직통) | 1-888-848-8707 브레이크점 | 562-809-7027
세리토스점(한국어 문의) | 1-877-767-8850 정의 & 장례보험 562-809-7027

김인수 칼럼



김인수 총장
미주장신대

금년은 6.25 사변이 일어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60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환갑(還甲)이다. 생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제 위치에 오는 해이다. 필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 흐르는 세월이 예사롭지 않다.

6.25 사변이 나던 1950년 남한은 일제 강점 35년으로부터 해방

된 지 겨우 5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지 불과 2년 밖에 안 된, 그래서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고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남한 전체가 인민군에게 점령당했다.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미국을 위시한 UN군의 은덕이다.

미국이 6.25에 참전하게 된 동기 중, 일반이 거의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당시 주미 대사로 있었던 장면 박사가 미국 조야에, 특히 미국 교회에 부르짖었던 내용이다. "남한에는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남한이 공산화되면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미국이 남한에 많은 군대를 보내고, UN군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동기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 수호' 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교회는 전화(戰禍)에 초토화되고, 아사(餓死) 직전의 한국인들, 특히 교인들을 위해 먹거리와, 입을 옷, 기타 생필품을 모아 대량으로 보내 주었다. 필자도 피난 생활 중 이들이 보내 준 구호양식을 먹었고 구제품 옷을 입고 살았다. 이런 미국과 미국 교회의 후원으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었

6.25 사변 60주년에

고, 전쟁고아, 과부, 장애인 등이 이들의 연명할 수 있었다.

6.25 사변으로 한국교회는 이북에서 공산당을 피해 남하한 많은 목사와 교인들에 힘입어 각처에 교회가 세워졌고, 전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성장을 거듭한 교회는 해외 선교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 도처에 수 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업을 달성했고,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수많은 신학교에는 세계 유수의 신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돌아온 교수들이 알찬 교육을 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지원하여 후세대 목회자로 또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훈련 받고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의 숫

자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부작용도 적지 않게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교회의 구성원들은 인간들이기에,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에나 부작용이 있고,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초대형 교회들의 세습 문제, 재정의 불투명성, 수천억을 들여 매머드 예배당을 짓는 문제 등등 안티 기독교 세력들의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 역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이다. 6.25 사변을 모르는 세대가 70, 80%에 이르는 현실에서, 특히 미국에서 내어난 2세대들이나, 어려서 미국에 이민 온 1.5세대들은 6.25 사변을 말로만 들었지,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심지어 남한에서도 6.25에 남쪽이 쳐 올라갔다고 하는 친북, 좌파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1.5, 2세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인간은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갚아야 한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보은하는데 있다. 우리가 미국에 진 은혜는 무슨 말로 찬사를 보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돕지 않았다면, 남한은 공산화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한반도에 교회는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교인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굶어서, 혹은 병으로, 혹은 폭력에 쓰러져

갔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이다. 남한만이라도 온갖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은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 자라는 1.5, 2세대는 최선을 다해 주류 사회에 편입하여 고위 직군(職群)에 올라 미국과 조국, 그리고 인류 복지와 자유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6.25 사변 때 미국에 진 빚을 일부라도 갚는 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특히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셔서 남한만이라도 구원해 주셨다. 우리 기독교인 모두는 자유도 빵도 없는 동토(凍土)에서 김일성 주체교(主體敎)에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날이 속히 오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남한에 사는 모두 뿐만 아니라, 이곳 미주에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당위임을 순간도 잊지 말자.

자생 칼럼



윤세필 대표원장
자생한방병원 풀러튼 분원

은 어깨 뒤쪽에서 팔꿈치까지 내려왔고, 때때로 넷째와 새끼 손가락까지 통증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근육 운동 후의 단순한 뻣근함 정도라면 여기던 박씨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자,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했다.

방사선 검사상 이상 소견은 없었지만 스트레칭 없이 급하

또한 지나친 긴장으로 이완이 잘되지 않으면 팔꿈치를 굽히기가 힘들어진다.

이 근육의 문제로 발생하는 통증은 주로 팔을 힘차게 뻗었을 때 팔꿈치 통증, 어깨와 팔의 뒤쪽에 나타나는 막연한 통증과 4, 5번째 손가락의 통증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주로

이 스트레칭은 상완삼두근 운동에 효과가 크지만 그 밖에도 광배근, 후삼각근 등 어깨와 등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상완 삼두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므로 평소 시에도 스트레칭이 많이 필요하다. 손상이 생길 경우 팔을

팔을 힘차게 뻗었을 때 팔꿈치 통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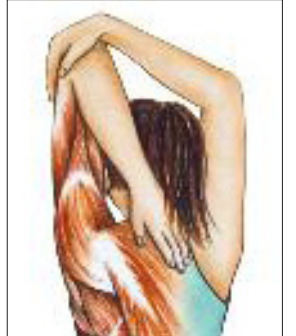
〈상완삼두근 스트레칭〉

게 시작한 운동으로 인한 상완삼두근과 주변 근육에 무리가 간 것이 원인이었다. 상완삼두근은 우리가 흔히 삼두박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으로, 주로 팔꿈치와 어깨에 작용하는 중요한 근육이다. 근육은 어깨 뒤쪽과 팔꿈치 뒷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이름처럼 세 개의 머리가 있는 근육이다.

상완삼두근은 팔 앞 쪽에서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을 돕고, 어깨를 내전(몸통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운동)시키고 신전(펼치고 늘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팔을 올리거나 퍼는 동작이 힘들어지고 물건을 던지거나 미는 것도 힘들어진다.

테니스나 골프와 같은 운동을 할 때 나타난다. 상완삼두근 스트레칭은 이러한 통증을 방지해주는 데 효과적이다. 먼저 똑바로 서거나 앉은 상태로 왼팔을 팔꿈치에서 굽힌다. 팔꿈치가 왼쪽 귀 옆에, 왼손이 오른쪽 견갑골(날개뼈)에 가까이 올 때까지 왼팔을 들어올린다.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머리 뒤에서 바닥 쪽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아당기거나 민다. 왼쪽 팔이 끝나면 팔을 바꿔서 오른쪽 팔도 스트레칭 해준다. 등반기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하면 더욱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데, 몸이 균형을 잘 잡으면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 할 수 있다.

굽히고 뻗기가 힘들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오게 되므로 평소 충분한 상완삼두근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스트레칭에 어려움을 겪거나 충분한 스트레칭으로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한요 칼럼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낡은 집을 헐지 않고 뜯어 고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음의 개조 혹은 변화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제도의 개혁이나, 헌법 수정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 시스템은 마음의 문제에서는 무능하다. 사람은 마음을 주지 않고 시스템을 따라가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마음을 향상시킬 수 없음을 효율적으로 개조된 부역을 가졌다고 가정주부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은 모습을 설교하며, 변화 받은 사람처럼 흉내 내라고 할 수 없다. 변화

마음의 리노베이션

부역을 개조할 때, 우리는 리노베이션 (renovation)한다고 한다. 목회를 하는 직업상 별 수 없는 관심사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변화'에 대한 관심은 그처럼 마음 리노베이션 (renovation)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집은 망치로 톱으로 고칠 수 있지만, 과연 마음은 고쳐질 수 있을까? 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다. 것처럼 쉽게 사람의 마음(heart)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받은 모습이 당위성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강단은 당위성을 전하는 것보다, 마음의 변화를 위한 복음의 선포가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이 바뀐다고 변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때 원동원 박사의 말씀처럼 선생이 스승 되고, 학부모가 부모 되고, 그리고 어른(older)이 장로(elder)될 것이다.

기독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출발일 : 9월 27일, 10월 25일

기독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성지 순례

이스라엘 6박 7일

\$2800 \$2150

방문지: 텔아비브, 예루살렘, 마사다, 쿨란, 갈릴리, 가버나움, 베들레헴, 가이사라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3300 \$2599

방문지: 카이로, 시내산, 타바, 에일랏트, 페트라, 암만, 느보산, 예루살렘, 사해, 쿨란, 텔아비브, 음바, 갈릴리, 가버나움

- 1. INCLUDE 갈릴리 유람선, 호텔/차량/식사 비용, 가이드, 국제선 항공권
- 2. EXCLUDE 비자 FEE, 이스라엘 출입국세, 뱃산으로의 국경통과시, 실로암 입장료
- 3. OPTION 시내산 낙타등반, 흥해해저 수족관, 가이드/드라이버 TIP, 식당 TIP, 음료, 기타 개인 소비비용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l. 213-388-4000

http://www.usajutour.com, aju@usajutour.com, ajutour@hotmail.com(LA본사)
Fax. 213-387-1006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이머와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이머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웨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김기형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이삿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를... 항상 정성을...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은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은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SK smart-naephone

- ☑ SK한국전화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 분당 20¢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213-435-0608

블라인드 커튼 전문 업체 MR 박을 찾아주세요!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스탠튼대학교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30여개국 해외진출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한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고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 213-388-4989
한국은행 ▶ 미국은행 송금서비스 가능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P.Love.Net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HIS.COM 출장수리전문

오픈기법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구,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213-810-4000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튼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방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엔브랜드 방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한대, 휘너, 삼성등만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이아전 1위

에어컨 성능과 수명을 선하게 알겠습니다. LG#86350

323.525.0011 / 213.200.5388/amazingaircon.com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7월 5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지금우리집 전화를 아이토크비비로 바꾸어, 놀라운 혜택! 놀라운 절약량이 기다립니다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단지 \$9.99/월*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첫 3개월에 한함, 이후 \$24.99/월)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까지 하나로!
글로벌 플랜 \$9.99/월*
한국에서 국내 통화하듯 미국으로 전화 [마이 코리아 넘버]
30일 환불보장
개통비(\$29.99) 면제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Miss Korea Washington D.C. 시상식에서 다이앤김 이사와 Miss iTalkBB 김경은 양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는 유지하고 싶지만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걱정이신 분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한국 등에 국제전화를 많이 거시는 분
- 미국 인터넷 환경에 맞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 영어가 불편해 한국어 고객센터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 외출시에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국제전화를 걸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1-800-875-8318 고객센터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재차 이용하는 경우 \$8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받은 통신 요금액을 합산해 부과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 우리집 전화] iTalkBB

iTalkBB 사업자 모집
한인 출점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최대** 규모, **최다** 차량 보유,
최신 장비 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 가격 보장"

한국에서의 명차 에쿠스가 미국에 드디어 옵니다.
\$99을 내시고 **예약**을 하시는 분께 명차를 우선적으로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6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현대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3YR STK:031704



2010 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2,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 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1,9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3YR STK:049539



6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9 HONDA ACCORD WHITE STK:P021316A

2007 CHRY TOWN&COUNTRY RED STK:P304471

2005 HONDA PILOT EX BLACK STK:025133BA

2007 HYUNDAI AZERA LTD GRAY STK:P185167

2008 HYUNDAI AZERA LTD SILVER STK:P295894

2009 HYUNDAI ELANTRA SILVER STK:P618846

2008 HYUNDAI ENTOURAGE GRAY STK:P052717

2009 HYUNDAI GENESIS SILVER STK:P031934

2009 HYUNDAI GENESIS WHITE STK:P048693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P586665

2003 MINI COOPER CONV. PURPLE

STK:568848A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8 NISSAN ALTIMA GRAY STK:P199144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타운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앤디 킴



스티브 박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